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99호 【무게 제25077호】 주제104 (2015)년 10월 26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완공에 기여한 련관단위 일군들, 근로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완공에 기여한 련관단위 일군들, 근로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로두철동지와 김영호 내각사무장, 리종국 기계공업상, 김용광 금속공업상, 강종관 료해운상, 장혁 철도상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우리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보장사업에서 로력적성과를 이룩

한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게 된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참가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촬영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며 주체조선의 위대한 새 승리를 떨쳐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져올리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과 애국의 불타는 마음으로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산악같이 떨쳐나 백두산청년강국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는데 기여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로력적위훈을 값높이 내세워주시며 최상최대의 영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올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고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러운 첨출대기념비, 청년강국의 상징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크게 기여한 련관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참가자들이 영광의 날에나 시련의 날에나 오직 당을 따라 변함없이 충정의 자욱을 아로새겨온 조선로동계급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앞으로도 우리 당을 경제강국건설의 빛나는 성과로 만들어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뜻깊은 평양견학의 나날을 보내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선군혁명명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한없는 사랑과 크나큰 믿음과 격려를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기상을 높이 펼쳐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었다.

본사정치정보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 활동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18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제350군부대를 시찰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김정은령도자를 따르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키우고 일당백의 싸움꾼으로 준비시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높은 흥연성과로 맞이한 군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을 처하하시었다. 전후력강화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일본의 교도통신과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통고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들, 도이철헤르만 제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저지도소식들>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통신은 또한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청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도자께서는 주체문화예술발전에 크게 이바지해가는 예술인들의 공헌성과를 축하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청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앞으로는 천민의 심장을 혁명 열, 투쟁열로 불타게 하는데서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세계잡신문 <더 보블레르>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합동공연을 관람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인민에 대한 어머니당의 사랑과 정이 맥박치고 조선로동당을 따라 영원히 대를 이어 총정다해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고 보도하였다.

일본의 통신과 나이지리아, 민주통고, 도이철헤르만의 인터넷홈페이지들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합동공연을 관람하시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인터넷홈페이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한편 민주통고의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공식컨설팅방문한 중국공산당대표단을 접견하신 소식을, 나이지리아의 인터넷홈페이지는 이 소식과 함께 사회주의선경마음으로 훌륭히 일떠선 라선시 선봉지구 백학동을 돌아보신 소식을, 만민신문 <더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만마>는 새로 건조한 종합방송사신 <무지개>호를 돌아보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지휘성원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과 군사칭호수여모임 진행

위대한 당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대로를 승리와 영광의 길로 수놓아가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치신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최후승리의 진군가를 높이 울리고있는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지휘성원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과 군사칭호수여모임이 25일에 진행되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 지휘성원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배려하여주시는 당 및 국가표창과 군사칭호수여하는 모임이 25일에 진행되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명령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지휘성원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공헌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350군부대를 시찰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김정은령도자를 따르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키우고 일당백의 싸움꾼으로 준비시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높은 흥연성과로 맞이한 군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을 처하하시었다. 전후력강화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일본의 교도통신과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통고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들, 도이철헤르만 제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저지도소식들>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통신은 또한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제350군부대를 시찰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김정은령도자를 따르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키우고 일당백의 싸움꾼으로 준비시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높은 흥연성과로 맞이한 군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을 처하하시었다. 전후력강화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일본의 교도통신과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통고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들, 도이철헤르만 제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저지도소식들>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통신은 또한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제350군부대를 시찰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김정은령도자를 따르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키우고 일당백의 싸움꾼으로 준비시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높은 흥연성과로 맞이한 군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을 처하하시었다. 전후력강화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일본의 교도통신과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통고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들, 도이철헤르만 제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저지도소식들>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통신은 또한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제350군부대를 시찰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김정은령도자를 따르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키우고 일당백의 싸움꾼으로 준비시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높은 흥연성과로 맞이한 군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을 처하하시었다. 전후력강화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일본의 교도통신과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통고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들, 도이철헤르만 제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저지도소식들>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통신은 또한

【조선중앙통신】

총진군속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자

생산돌격전의 불길높이 자랑찬 위훈을

순천화력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와 공동구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순천화력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비상한 애국적열의를 안고 전력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켜 올리고있다.

뜻깊은 올해의 정초부터 메달 전력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이들은 지금 계절조건에 맞게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일별과제를 1.1배이상으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펼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선봉부대로 기초공업부문을 주력세우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 설비, 전력, 금속, 철도운수부문을 확고히 앞세우고 경제각국건설의 도약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발전소의 일군들은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화신의 기판차가 되어 그들을 새로운 위훈창조로 힘있게 불어일으키고있다. 이들은 해당 단위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연로보장에 큰 힘을 넣고 가동중이 있는 보일러와 타닌발전기 등의 정상운전을 책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특히 설비들의 정비보수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하여 종전보다 가동시간을 1.2배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기술자, 기능공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면서 그들의 창조적열의를 불어일으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분위기를 일으키고있다.

일군들부터가 생산돌격전의 앞장에서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진력을 활화산처럼 분출시키며 현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로동자들과 함께 불꽃튀는 중산전투를 벌이면서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하고있다.

화력발전소를 맡은 맹태관장과 전성철전관장의 지하막장에서도, 순천과 신성철철도본국의 석탄수송열차에서도 언제나 이곳 발전소일군들의 미더운 모습을 찾아볼수 있다. 발전소의 전장장부에서 로동자, 기술자로서 전력증산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원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생산의 첫 공정을 맡은 하차장장과 운전직장의 로동자들이

편애를 비롯한 설비들의 수리정비사업을 간지럽게 하면서 석탄이 들어오는죽목 제때에 부러우고 보일러들에 지체없이 보내주고있다.

열생산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보일러를 철저히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관리운영하면서 배운기와 과열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정비보수를 실속있게 하여 매일 많은 량의 증기를 생산보장하고있다.

타닌발전기의 전력생산자들이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발전설비들의 만부하를 보장하고있을 때 전기적장의 기능공들은 맡겨진 전력생산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다. 특히 매달 계획수행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이고있는 1교대의 로동자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많은 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나가고있다.

뜻깊은 당장전 일꾼들을 며칠 앞둔 어느날, 운영중에 있던 3호보일러에서 이상소리가 나왔다. 종전방식대로 수리정비하자면 어차피 보일러를 세워야 했다. 아니다. 이 한물 장그리 불태워서라도 보일러의 승격을 지켜내야 한다. 열생산직장과 열설비보수직

장의 로동계급은 파죽의 심장으로 이렇게 대담해나섰다. 즉시 치명적인 결사전이 벌어졌다. 화력 내뿜는 고열과 보일러 수증기로 한치앞도 가려보기 힘든 조건에서도 이들은 판교제 작업을 긴장하게 벌였다.

달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전력증산에 참담계 이바지하려는 이들의 순결한 마음과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종전같은 보일러를 새로우고 3일이상만 걸려야 할 과제가 단 8시간만에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증산의 동음은 더욱 힘차게 울려다지게 되었다.

어찌 이뿐이랴. 발전소로동계급은 현행생산을 보장하는 바쁜 속에서도 수km구간의 취우를 하루사이 에 와타닥 정리하여 필요한 공업용수를 자재로 더욱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당장전 일꾼들을 승려자의 대추처럼 보인 자택안고 증산의 동음은 힘차게 울려다지고 있는 3호기와 1호기의 전력생산자들, 철관을 비롯하여 내부에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고 자력갱생기치를 활짝펴 하여 필요한 용접자재들과 강철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면서 4호기와 2호기대보수를 앞당

겨 끝낸 열설비보수직장과 전기라인보수직장의 로동계급, 보일러의 분리기를 개조하여 미분탄생산량을 더욱 높이고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공정의 현대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창조적적해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 발전소의 기술자들...

정병 발전소의 그 어느 단위에서나 전력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해 파감히 돌진해나가는 이곳 로동계급의 불타오르는 애국심을 가슴벅차게 느낄수 있다.

우리 당은 이인위원의 한성으로 인민을 키우시고 조선을 빛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사상과 업적을 귀감으로 삼고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할것이며 인민의 아름다움과 이상을 실현해나갈것이며 하고 하신 정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바로 그 인민으로서의 참된 본분과 의리를 다하기 위해 증산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순천화력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불타오르는 애국정열과 헌신적인 노력정열에 의하여 전력생산성과는 날이 더욱 확대되고있다.

새 기술연구와 노임에 불붙인 열정에서

복합화력 발전연합기업소에 달려나간 국가과학원 물리학연구소의 연구사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연구부문을서 최첨단표준을 힘있게 점령하며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국가과학원 물리학연구소 금속물리연구실의 연구사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공동구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이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현장에 든든히 발을 붙이고 기업소의 기술자, 기능공들과 창조적적해를 합쳐가며 전력증산에 실질 도움을 줄수 있게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를 거둬들이고 있다.

이들은 현장에 든든히 발을 붙이고 기업소의 기술자, 기능공들과 창조적적해를 합쳐가며 전력증산에 실질 도움을 줄수 있게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를 거둬들이고 있다. 이들은 현장에 든든히 발을 붙이고 기업소의 기술자, 기능공들과 창조적적해를 합쳐가며 전력증산에 실질 도움을 줄수 있게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를 거둬들이고 있다.

조금만 마모되어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것으로 하여 지난 시기 설비가동에서 적지 않은 애로를 느끼었다. 실장 최창남, 연구사들인 문만연, 최성광, 김경일, 홍금영동무들은 불꽃방전과 불꽃방전과 불꽃방전과 불꽃방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마모된 날개를 손색없이 재생리용하는데서 큰 진전을 이룩하였다.

이들이 재생한 수십개의 금속수평날개들을 써본 현장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성능이 새것보다 결코 못하지 않으며 많은 로력과 자금을 절약할수 있어 좋다고 한다.

대형회전설비의 축에서 이상소리가 나랴났을 때 이들을 대담하게 설비를 해체하지 않고 10cm높이에 새로운 장치를 설치하여 3일만에 수리정비작업을 질적으로 끝냄으로써 생산정상화에 한몫 단단히 기여하였다.

이들은 현장기술자, 기능공들의 풍부한 경험에서 허심하게 배우고 함께 분발하며 다른 공장, 기업소에서도 능히 받아들일수 있는 좋은 연구성과들을 적극 개발하고있다. 복합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기술일군들과 운영철동무들 비

일군들의 관점과 립장이 중요하다

김덕광업연합기업소 2선광직장에서

적덕광업연합기업소 2선광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공동구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자재의 힘과 기술로 현존설비들의 능력을 높이며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위하여 애국적열의를 안고 전력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켜 올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여기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현시기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는것은 모든 단위들에서 높은 생산장성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가 찾았던 2선광직장의 생산공정현대화사업이 그것을 뚜렷이 증명해주고있다. 몇몇 전직장장들을 시작한 신기술투자는 생산공정들을 로해하던중 일부 설비들의 리용현안이 오래되어 시급히 교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분급기가 제일 난문제였다.

립과 기술로 분급기를 개조할 결심에 리선형으로 되어있던 분급기를 원통형으로 만들수 있는 설계안을 내놓았다. 종전의 분급기를 완전히 들어내고 새 분급기를 설치해야 하는 일은 여간한 일이 드는 사업이 아니었다. 머리를 흔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전문설계자들이 내놓은것도 아니고 풍부한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시작했다가 생산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것이였다. 누구나 선뜻 밀어지지 않을 때 신심을 안겨주고 적적 떨어뜨렸던 전직장장도 당조직이었다. 전문설계자들을 초빙하여 설계의 미약한 점도 찾아내고 기술현황의 정도 여러차례 진행하여 설계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설비제작전투가 시작될 때 우리는 찾았던 2선광직장의 생산공정현대화사업이 그것을 뚜렷이 증명해주고있다. 몇몇 전직장장들을 시작한 신기술투자는 생산공정들을 로해하던중 일부 설비들의 리용현안이 오래되어 시급히 교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분급기가 제일 난문제였다.

그후 그는 직장에서 자재의

조건에 비해 전기를 절반이상 절약하면서도 그전에 나타났던 침전현상을 없애는 등 실수율이 높은 새형의 분급기는 이렇게 제작되게 되었다.

신심을 얻은 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현이 액면리파의 힘차게 대담하게 평지차로 교체하기 위한 작업을 현실에 받아들이고 수동식으로 가동하던 마땅기에 자동수동으로 설치하여 컴퓨터로 자동조절할수 있게 하였다.

새 공장에서 얻은 권 리익은 적지 않았다. 가공률이 향상되고 불합리한 공정이 완전히 없어져 생산에서 일대 혁신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공정이 원만, 자동화되어 제품의 질도 훨씬 높아지게 되었다. 이룩된 성과를 계기로 보다

높은 목표를 내세운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금 공기계식부식작업을 비롯한 새로운 현대화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직장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의 비결은 무엇인가. 생산공정의 현대화사업은 다름아닌 일군들의 관점과 립장에 달려있다는것이다.

한대의 설비, 하나의 치자를 놓고도 자재의 힘과 기술로 갱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과학기술의 높은 경지를 하 나하나 점령하는것이 우리의것을 사랑하고 배를 내다볼수 있는 일이며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일군이다. 글 및 사진 윤금찬

불리한 조건을 역전시킨 대담한 협동작전

함경북도수산물관리국에서 작은 고기배들을 위주로 한 집단어로전으로 성과 확대

지난 어느날 함경북도 앞바다의 먼 수역에 낚시배가 나타났다. 어항동보가 들어왔다. 불리한 어항조건으로 100n mile 이상 되는 먼바다에 나가야만 하였다. 큰 고기배들은 거기도 다른 먼바다어장에 진출한 상태여서 한 집단어로정형은 불가능한것으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당의 수산정책관청로 높이는 심정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도수산관리국에 크고 작은 생산단위의 어로공들은 작은 고기배들을 위주로 한 배 배들과의 협동작전으로 대담한 어로전을 벌일것을 결의해나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이 백투의 혁명정신, 백투의 캄바항진으로 앞머리 투쟁하여야 합니다.》** 지금껏 작은 고기배들을 위주로 한 배 배들과의 협동작전으로 먼바다집단어로전으로 큰 성과를 거두어왔다. 이것은 모험을 동반하는 일이였기 때문이다. 때때로 들이닥치는 세찬 파도, 한달가량 작업하는데 필요한 물자만 실자고 해도 작은 고기

배들의 능력은 모자랐다. 그렇다고 큰 고기배를 바라보면 신속한 어로전을 기대할수 없고는 앞의 낚시배를 놓칠수 없었다. 도수산관리국의 일군들이 지혜를 발휘하였다. 이 파도에 소규모로 진행된 지난해의 작은 고기배에 의한 집단어로정형은 대담하게 받아들여기로 하였다.

그에 대한 대중들의 결과는 능히 가능하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큰 배에 연유와 후방물자들이 실려가면 작은 고기배들도 능히 오래동안 작업할수 있었다. 작은 물고기로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큰 고기배들의 주위에서 현대적인 어군탐색설비와 기상관측장비를 잘 리용하면 먼바다에서의 어로전에 지장이 없었다.

도수산관리국의 책임일군인 김창일동무는 아래단위들에 내려가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 들었다. 특히 모신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는 큰 고기배들을 선발하는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50여척의 작은 고기배들의 어로공들이 먼바다에서 한달정도 작업하는데 필요한 연유와 후방물, 후방물자들을 마련하고 3척의 큰 고기배들에 갈라선도록 하였다. 모두 중요하게는 어군탐색과 기상관측설비가 제일 우수한 큰 고기배를

선택하고 불리한 점이 없는가를 하나하나 따지며 단단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성능이 좋은 작은 고기배들을 선발하여 선장들의 감수를 조직하였다. 여러차례 걸쳐 진행된 감수에서는 작업단위와 수역, 먼바다어장에서 잡은 물고기를 처리하고 연유를 공급받는 제제며 해상정보시정인한 행동지침들이 구체적으로 강조되었다.

민단의 준비비에 도수산관리국에서는 50여척의 작은 고기배들로 파간한 집단어로전에 나섰다. 6월과 7월 중순 백두의 칼바람에 불을 단 옹양한 바다의 정복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기세드높이 먼바다로 떠났다. 큰 고기배들을 선두로 편대로 갔고 먼바다로 향해서는 집단어로전 단의 지휘선에는 오랜 물고기잡이 경험과 담대한 배짱을 지닌 사상 박사수준의 투사들이 타고있다.

가늘고 좁은 바닷물이 막아선 해도 물러서지 않을 이들의 기상에 놀리운듯 하루집을 달려 먼바다어장에 도착하자 바다를 서는 예상대로 좋았다. 그렇다고 전기간 작업조건이 좋은것은 아니었다. 작은 고기배의 어로공들은 신속한 날씨예보에 기초하여 집중과 분산의 방법으로 어획고를

높였다. 신앙, 청정, 은혜배를 수산사업소가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며 파간한 집단어로전에 앞장섰다.

큰 고기배의 어로공들은 작은 물고기들에 대한 하산작업으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면서 작은 고기배들의 훌륭한 작업조건보장을 위해 뛰고 또 뛰었다.

몇척의 큰 고기배와 작은 고기배를 위주로 한 집단어로전은 불리한 어항조건에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배이상에 달하는 생산실적을 기록하여 사람들의 놀라움을 사들였다. 어로전투과정중 목격한 수산성의 한 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 대단하였읍니다. 한한의 생산수익에서는 당의 수산정책관청투쟁에 떨쳐나선 함경북도 어로공들의 총정의 열도가 전하게 깔려있습니다.》** 함경북도수산관리국 일군들의 대담한 일본배는 도무지기절이 다가오는 요즘 더욱 활기있게 발휘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공동구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함경도의 새 력사를 창조하기 위한 이들의 불같은 투쟁은 보다 큰 성과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전 혁 철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5돐에 즈음하여

우의탑에 화환 진정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5돐에 즈음하여 25일 우의탑에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우의탑에는 조선인민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화환진정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와 조종전선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강하국보건의장, 막관광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형용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광현 인민보안부 부부장, 리경성 위무부 부장, 구내대 대외경제성 부장, 김인범 문화성 부장 겸 영화총국 총국장, 서호원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판계부부 일군들, 시내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장승강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립시대회대와 대사관직원들, 리립국부장은 단장으로 하는 중국인민정부 대표단,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중국소년들, 중국유학생들, 화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중국 국가와 우리나라 애국가가 주악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인

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이 우의탑에 진정되었다.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위무성, 대외경제성, 문화성, 대외문화협력위원회와 조종전선협회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위무부 부부장, 김형용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광현 인민보안부 부부장, 리경성 위무부 부장, 구내대 대외경제성 부장, 김인범 문화성 부장 겸 영화총국 총국장, 서호원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판계부부 일군들, 시내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화환들의 명기에는 《중국인민지원군 련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중국인민지원군 련사들은 영원불멸할것이다》라는 글말이 쓰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함미원조보가위

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전선에 용양 달려나와 미제침략자들을 쳐물리치는 싸움에서 커감한 생명들을 바친 중국인민지원군 련사들을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이러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문명행진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우의탑을 돌아보았다. 또한 형제산구역, 안주시, 회창군, 온성군 등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용원, 련사묘에도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한편 이날 개성시에서는 개진된 중국인민지원군렬사용원 준공식이 있었다. 준공식에서는 중국인민지원군 련사들을 추모하여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새로 찾은 100정보 땅의 주인들

평원군에서

새로 조직된 2개의 청년작업반들이 올해농사를 잘 짓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부침표가 적은 우리 나라에서 알곡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합니다.》** 만동농지수지를 재구조화한 전후에 그 주변에서 100정보의 새땅을 찾아내는 공사는 참으로 어렵고 방대한 공사였다.

평원군의 새로 찾은 100정보 땅에 벼이삭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자랑찬 모습은 평안남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장전 일꾼들에 드린 자랑찬 노력정열과 도의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다. 평안남도에서는 지난 겨울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평원군의 만동농지수지 주변에서 한달 남짓한 기간에 100정보의 새땅을 찾아내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어 내달 평원군에 농사에 필요한 15개의 용배수구조물공사와 2개의 양수장건설을 끝내고 올해 모내기 성과를 초과하여 보장하였다.

우리 당의 후미대가 어떻게 준비되고 혁명의 대가 어떻게 이어지고있는가를 보여주는 자랑찬 모습이 새로평원에 펼쳐졌다. 당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고 여기에 달려나와 대오의 앞장에서 위훈을 떨쳐가던 평양기금생산공작대 대원 김경철, 외국문물관사들대 대원 최남혁동무들, 정은 수도 평양에 집을 둔 이들은 새로평원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추산물생산자로 헌생을 바쳐갈 결심을 다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만을 드릴수 있었다 그보다 크나큰 영광과 행복이 어디 있랴. 이런 생각으로 새땅에 뉘리고 있는 이들의 가슴에서 다진 맹세를 변함없이 지켜갈 의지가 담긴 웨일이 터져나왔다. 새로평원의 영원한 청춘으로 살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도당위원회에서는 공사를 빠른 시일에 다그쳐 끝내고 올해부터 농사를 짓기 위한 데 담담하고 튼튼한 계획을 세우고 그 수행에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려 일으켰다.

그러하여 20여km의 구간에 수십만m²의 제방정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5월 평원군에 새로 생긴 100

정보 땅의 주인이 될것을 결심하고 사회주의 농촌으로 단단한 토의 청년들과 고급중학교졸업생들로 2개의 청년작업반을 내오고 축하모임도의 의외로 조직해준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도당위원회에서는 청년작업반원들이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도 느끼지 않게 청년작업반원들을 훌륭히 건설하도록 하였다. 【평원군과 순천시의 책임일군들

들이 건설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을 발동하여 청년작업반원들을 사회주의문화농촌의 본보기가게 훌륭히 완성하도록 하였다. 새로 조직된 평원군 대동농동농장 청년작업반들과 운봉동농동농장 청년작업반들에는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높은 알곡생산성과로 보답할 일념으로 온한해 100정보의 땅에 성실한 땅을 바치겠다.

도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속에 평원땅에는 100정보의 옥토가 새로 생겨나고 그 땅의 주인이 된 청년작업반원들의 성실한 노력에 의하여 황금이삭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평원군과 순천시의 책임일군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